



진학, 왕따, 청소년 고민 걱정말고 전화주세요!

'마음의 전화' 상담봉사자들

"저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 취직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꼭 대학에 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 학교가기가 싫어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는 성적과 진로에 대한 갈등을 겪게 마련이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계의 '핫라인' 이 바로 '마음의 전화'다. 12월 찾아간 서울 마포구 창천동 달마선원 내 마음의전화 사무실에는 대표 도각 스님과 자원봉사자 고창영(45), 윤화란(36) 씨가 전화 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4년째 상담

한달 평균 20~30건, 길게는 3~6개월 상담

자비, 인연 사상 기반아래 선 심리치료 병행

봉사를 하고 있는 고창영 씨는 선심리치료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바로 '실전'에 뛰어들었다. 개인사업을 하는 바쁜 일직 속에서도 일주일에 세 번은 꼭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고 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한 고 씨는 "청소년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상담자의 기본 자세"라며 "상담은 단순히 배운 것을 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고 말한다. 상담봉사 경력 6개월의 '신함' 봉사자 윤

화란 씨는 요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마음의 전화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서원을 세웠던 '초보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전화로 설 새 없이 쏟아내는 고민들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는 윤 씨는 "고민에 휩싸여 있던 청소년들이 밝게 웃으며 다시 상담소를 찾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마음의전화에 걸려오는 상담 전화는 한달 평균 20~30건. 일반 상담전화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 번 상담소를 찾은 청소년들과는 짧게는 한달에서부터 길게는 3~6개월에 걸쳐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동안 매년 1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광명보육원 등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펼쳐 온 마음의 전화 자원봉사자들은 매년 청소년 예술대전이나 팔관제 같은 행사도 열어 청소년들과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8년에는 문화관광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1995년 3월 1일 문을 연 마음의전화가 일반 청소년 상담전화와 다른 점은 '선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 선 심리상담 양성과정을 거친 상담원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인연사상에 기반을 둔 상담과 선 수행을 통한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전화는 상담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02)738-1275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interview

마음의 전화 대표 도각스님

"전국 어디서나 청소년 곁에 다가갈 터"



"전화기 두 대로 시작한 '사랑의 전화'가 오늘날 전국을 연 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듯이 마음의전화도 전국 어디서나 청소년의 곁에 있는 단체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선 심리치료학 개론>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한 도각 스님(마음의전화 대표)은 카운슬러 교육 자격증과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청소년 전문 상담가'다. 1995년 2월 26일 청소년 상담연구원을 개원한 후 3월 1일 마음의전화를 개통함으로써 청소년 상

담 일선에 뛰어든 스님은 "선 심리상담은 인간 삶의 고통과 번뇌 망상을 참선을 통해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인한 수행의지와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며 "몸과 마음이 모두 불안정한 청소년들에게 특히 선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올해 가을 중 새 단장된 선보일 마음의전화 홈페이지는 그동안의 상담사례와 자료를 볼 수 있는 청소년 상담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아용산 수지 (F)

평화지도자이자 '세계적 양심'

아용산 수지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군부 독재세력에 맞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는 평화지도자이자 인권을 대표하는 세계적 양심으로 존경받고 있다. 그녀는 가택연금 상태이던 1991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녀를 대신해 두 아들이 오슬로에서 이 상을 수상할 때 노벨평화상위원회 위원장은 그녀를 "힘없는 자들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 최고의 사례"이며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어느 권력도 그녀를 침묵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아용산 수지는 언제나 그들을 군부독재로부터 해방시켜 줄 최선이자 유일한 희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45년 6월 19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용산 장군의 딸로 출생한 아용산 수지는 60년 어머니 킨지(Khin Kyi) 여사가 미얀마의 인도 주재 대사로 부임하게 되자 어머니를 따라 인도로 갔다. 4년 후 아용산 수지는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 세인트 휴즈 대학에 진학하여 철학,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여 67년 학사 학위를 받았다. 69년부터 71년까지 유엔사무국의 행정 및 예산문제 자문위원회 비서로 근무했고, 72년에는 부탄 외무부 연구원으로 일했다. 72년 옥스퍼드 시절 동창이었던 마이클 아이리스(Michael Aris)박사와 결혼했고,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 주부로 살았다.

그러나 고국 미얀마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88년 3월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해 지자 조국 땅을 다시 밟은 그는 88년 8월 8일 시작된 소위 '8-8-88 민주화'의 한 복판에 서게 된다. 8월 8일 수만 명의 학생들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스님들은 62년부터 미얀마를 고립시킨 사회주의로 인해 병들게 만든 네 윈(Ne Win)과 그의 군부 독재세력을 규탄하고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이 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군부는 무제한 발포로 대응하면서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마침내 88년 8월 26일 양곤의 유명한 불교사

원인 제다곤 파고다 앞에 모인 50만 명의 군중 앞에서 수지 여사는 "나의 아버지 아용산의 딸로서 지금 벌여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태에 무관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제2의 독립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88년 9월 친위 쿠데타로 다시 권력을 확보한 군부는 국가법질서 회복위원회(SLORC)라는 군사정권을 만들었다. 이에 아용산 수지는 같은 달 전국민주연맹(NLD)을 창설하고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몇 차례의 암살 위기를 모면하고 수지 여사가 이끄는 전국민주연맹(NLD) 당원들은 90년 총선에서 전체 485석 중 80%인 3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의 군사정권(SLORC)은 이러한 선거결과를 무시하고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민주세력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 해 자택 구금에서 벗어났지만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을 포기하지 않아 지난 5월 31일 다시 구금되었다. 수지 여사는 또다시 구금되었지만, 어떠한 위협도 그녀와 미얀마 불자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온갖 더러움과 고난을 이기고 활짝 피는 진흙속에 피는 연꽃처럼. 김재경 기자



◇미얀마민주화의 상징 아용산수지.

91년 민주화 노력 인정 노벨평화상 수상

암살위기에 총선 압승, 군사독재 비판 구금

"마음의 눈으로 보면 온세상이 밝아요"

부광 맹인불자회의 하루 찾집

15일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뜻깊은 하루 찾집이 열렸다. 부광맹인불자회(회장 배홍만)가 시각장애인들의 마음을 밝혀 줄 점자경전과 컴퓨터, 법회지원 차량 마련을 위해 펼친 자리였다.

행사 준비, 손님맞이 등의 일은 회원들 자력으로 불가능해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도

법회차량, 점자 경전 마련위해 열어

침·뜸 등 무료봉사, 도움 받은 것 회향

매일 첫째, 셋째 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정기법회와 연 2회 야의 법회를 열고 있는 부광맹인불자회의 등록 회원은 133명.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법회 참석이 어렵다 보니 참석인원은 고작 30~40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법회 날 법

회장소까지 회원들을 이동시킬 차량과 차량운전 봉사자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들이 장애인이라고 도움만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매일 첫째 주 법회에 앞서 회원들은 통도사 부산포교원 신도 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침, 뜸, 안마, 지압

등의 봉사 활동을 통해 도움 받은 것 회향하며 정진하고 있다.

배홍만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일 반불자들의 관심과 도움은 빛과 지팡이와 같다"며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했다. (019)511-6611 부산=천미희 기자

명가의 명향 - 석씨향방

울향, 침향, 단향, 유향, 감송향, 사향, 육계, 안식향, 용뇌, 목향, 회향 외 기타 등등의 최고급 순수 향약재만을 사용합니다.

석씨향방은 최고의 제품만을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세균번식 억제)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차집, 영안실)

◆ 의식용 목적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눈이 맑거나 목이 아프지 않으며
-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고
- 건강에 도움을 주며
- 불쾌한 냄새, 흡연실 담배냄새 제거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노·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였으며, 화공약품은 0.1%도 안되는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 석씨향방의 캠페인 - 건강을 위해 천연향을 애용합시다 ☆

☎ 02)538-7161 http://www.hyangga.com

간(肝)이

간 지방간
간 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응답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담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황아리에 넣고 황겨 97마니를 덮은 뒤 완개를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 기름을 끓여낸 뒤 황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황겨가 다 터들어 가기까지 고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제14기)
- 교육방법: ① 출강 ... 매주 수요일·금요일 오후 6시~8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교육내용

- ① 송주편(도량석·조석종성 등)
-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항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 ③ 현공편(삼보통정·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선종청 등)
- ④ 재의식편(천도제·49제·사다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 ⑤ 시식편(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 접수방법: 전화 접수 후 서류제출 (현재 접수중)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개강일시: 7월 4일(금) 오후 6시, 본 대학 강의실(특약, 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 위치: 서울 조계사 근처